

**코데코그룹, 칼리만탄섬에 시멘트공장 건설**

1996. 4. 9

코데코(KODEKO) 그룹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및 일본 마루베니상사 등과 합작으로 칼리만탄섬 남부 바투리친에 4억8천7백90만달러를 투입, 98년 3월 준공예정으로 연산 2백50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기로 하고 4월 9일 기공식을 가졌다. 공사비는 합작법인의 자본금으로 1억5천만달러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일본 마루베니상사가 주관아래 해외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장이 건설되는 바투리친지역은 석회암과 규사, 철광석, 점토 등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원료조달이 용이한데다 인근에 항만이 있어 운송에도 유리하다.

**홍우산업, 배처플랜트선 2척 취항**

1996. 4. 17

부산 전문건설업체인 홍우산업을 콘크리트 생산선박인 배처플랜트선(BPT선) 2척을 수입, 부산 광안대로 공사현장에서 취항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다. 부산 남성조선사 만든 바지선에 일본 IHI사가 제작한 콘크리트 생산시설(배처플랜트)과 자재저장 탱크를 얹은 것으로 길이 50m, 너비 20m, 높이 5m 규모의 콘크리트 생산시설에서 한시간에 1백20㎡(레미콘 트럭 17대분)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

**日, 가와사키 중공업-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

**유동상 시멘트 소성기술 상용화**

1996. 4. 24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과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는 공동으로 97년도까지 석탄이용 종합센터와 시멘트협

회의 지도로 개발중인 유동상 시멘트 소성기술의 상업화 개발을 끝내고, 98년도부터 자국은 물론 해외에 대해 상업화하기로 했다. 이는 특수시멘트 제조, 플랜트 건설의 용이함과 함께 저품질의 석탄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

유동상 시멘트 소성기술은 양사가 10년전부터 공동으로 개발해 온 기술로, 기존의 로터킬른 방식의 소성플랜트가 가로형인데 비해 세로형이며 상부에 조립로, 원료가루 뿌리기 장치, 바닥부분 급배출장치, 소성로, 싱클러 등으로 구성된다.

**한일시멘트, 외식업에 신규진출**

1996. 4. 30

한일시멘트는 사업다각화와 유망사업 진출을 위해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외식사업에 신규 진출기로 결정하고 상반기중 체인 1호점을 개설기로 하였다. 한일시멘트는 이를 위해 미국외식업체와 기술도입을 추진중이다.

**일본시멘트업계, 연속적인 마진 폭 인하**

1996. 5. 4

일본시멘트, 지치부-오노다시멘트에 이어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가 6월부터 판매점에 지불하는 마진을 인하하기로 결정, 마진 폭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시멘트 시장의 침체로 인한 영업실적의 회복을 목표로 하여 그동안 각사 사정에 따라 판매가격의 6%에 상당하는 기본구전율을 1% 삭감하고 장려금을 폐지함에 따라 연간 10여억엔의 경비절감이 가능하리라 보인다. 그동안 일본시멘트 업계에서는 통상 시멘트가 업체에서 출하된 후 판매점을 경유해 레미콘이나 건재회사로 넘겨질 때 업체를 대신한 판로확대와 가격

교섭을 하므로 실적에 따른 마진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다.

**아세아 시멘트, 건조모르타르사업에 신규진출**  
1996.5.4

아세아시멘트가 안양에 위치한 서울레미콘 공장내에 그동안 40억원을 투입, 착공 6개월만에 20만톤 규모의 건조모르타르 생산설비를 완공하고 5월 4일부터 가동함에 따라 건조모르타르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울산콘크리트,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  
1996.5.8

지방레미콘 생산업체인 울산콘크리트가 선경건설 연구소의 기술지원을 통해 2년여만에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제품의 최고강도 300kg/cm<sup>2</sup>보다 150~200kg/cm<sup>2</sup> 높은 450~500kg/cm<sup>2</sup>이며, 일반시멘트를 이용해 별도 설비없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소 2시간 이상의 유동성이 유지돼 교통난에 의한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타설시간의 단축 및 작업시간, 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양시멘트, 삼척에 대규모 레저관광단지 조성**  
1996.5.9

동양시멘트는 강원도 삼척시 상맹방리 일대 1백만평에 대규모 레저관광단지인 "초당관광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근덕면 상하맹방리와 교곡, 교가리에 걸친 1백3만평의 초당관광지는 2002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 골프장, 콘도, 호텔, 민속촌 등을 갖추게 될 계획이다.

**덕산시멘트, 대주건설 등 3개사에 낙찰**  
1996.5.14

지난해 2월 부도가 났던 덕산시멘트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3차경매에서 2백71억원에 대주건설 등 광주, 전남지역 3개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낙찰되었다. 지난 89년 말 설립된 덕산시멘트는 자본금 1백억원에 총자산이 1천2백45억원으로 연간 1백여만톤의 슬래그 시멘트를 생산하여 오다가 지난해 모기업인 덕산그룹의 부도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어 왔었다.

**동양시멘트, 북한에 시멘트유통기지 건설**  
1996.5.15

동양시멘트가 지난해 두차례의 북한방문과 올해 중국 북경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등 꾸준한 접촉을 통해 시멘트유통기지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에 의견접촉을 이뤄냈다.

동양시멘트는 3백만달러를 투자, 올해안에 북한의 나진·선봉항에 사일로를 건설키로 하고 곧 통일원에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건설공사를 담당할 실무진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를 담당할 한국측 기술진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산하 관련업체 기술진이 북경에서 만나 세부적인 기술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 통일원의 승인만 나면 곧바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동양시멘트, 저발열 시멘트 개발**  
1996.5.16

동양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자체 온도상승을 일반 시멘트의 절반으로 억제함으로써 고열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는 등 대량의 콘크리트 작업을 가능케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저발열 시멘트를 개발해 다음달부터 시판할 계획이다.

**쌍용양회-한국중공업, 공동으로 베트남에**

**시멘트공장 설립**

1996. 5. 18

쌍용양회와 한국중공업이 베트남에 연산 1백40만톤 규모의 시멘트 생산공장을 현지업체와 합작건설해 운영한다. 쌍용양회와 한국중공업과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 동쪽 1백60km 떨어진 팡닌성에 현지의 비나코일사, 팡닌컴스트럭션사와 합작하여 2억5천만달러를 투자, 시멘트공장을 건설키로 최근 합의하였다.

**시멘트업계 포장시멘트 현물인도방법 변경**

1996. 5. 20

시멘트업계는 5월20일 최근 시멘트 가격의 오름세가 일부 중간 브로커의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포장시멘트 현물인도방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발행한 시멘트 출고의뢰서(오더)는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현물을 인도토록 하여 브로커들의 출고의뢰서 매집을 막기로 하고 변경된 인도방법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되며 만일 15일내 인수하지 않으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나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라그룹, 인도네시아에 시멘트공장 합작건설**

1996. 5. 27

한라그룹이 인도네시아 자바에 연산 3백50만t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현지 카유라피스그룹과 합작으로

턴키방식(일괄수주)으로 건설한다. 총 투자규모가 약 4억달러(약3천2백억원)을 들여 중부자바의 세메랑지역에 건설되며 두 회사는 각각 50대50의 지분을 갖게 된다. 양사는 한라그룹에서 이 시멘트 공장을 턴키방식으로 건설하고 카유라피스 그룹은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라는 현재 카유라피스 그룹이 추진중인 하루 2천t 생산규모의 펄프공장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펄프공장도 합작건설하는데 합의했다.

**대우건설, 인도네시아서 시멘트플랜트 수주**

1996. 5. 29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세멘 보스와 라로스사가 발주한 2억9백만달러규모의 보소와시멘트 플랜트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9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섬 우중관당市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마로스지역 15만여평 부지에 연산 1백80만톤의 규모로 건설된다.

**요업기술원,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

**제조기술개발**

1996. 5. 31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시, 저품위 석회석 등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이 요업기술원에 의해 개발됐다. 요업기술원의 박종욱 박사는 전로슬래그 프라이애시 저품위석회석과 화학석고를 사용해 낮은 온도에서 시멘트클링커를 합성하는 저열형 시멘트 제조방법을 개발하였다.